

해외의약뉴스

스타틴계 약물은 전립선암 생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 Lauren Christine Harshman

개요

연구 보고서에는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이 질병 진행을 늦추는 것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키워드

스타틴, 전립선암, 남성 호르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계 약물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임으로써 약물을 복용하는 남성에게서 전립선암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스타틴 복용과 안드로겐 결핍치료를 병용 시 전립선암의 진행을 약 10개월가량 늦췄다고 연구의 주 저자이자 Dana-Farber 암연구소 및 하버드 의과대학교 조교수인 Lauren Christine Harshman 박사는 말했다.

“스타틴에 노출된 환자는 암의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Harshman은 말했다.

이 연구에서는 스타틴과 전립선암 생존 사이에는 단지 연관성만 있고,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을 공급원으로 하는데, 안드로겐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포함한다. 암 전문의들은 사람의 신체에 안드로겐 수치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전립선암을 치료하곤 한다.

이전 연구는 진전된 전립선암의 결과와 스타틴 사용을 결부지어 왔다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Helen Diller 가족종합암센터의 의학 및 비뇨기과 교수이자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전문가 Charles Ryan 박사는 말했다.

본 연구의 경우, Harshman과 그녀의 동료들은 안드로겐 결핍치료를 치료중인 926명의 전립선암 환자들로부터 의료 데이터를 검토했다.

환자들의 진행을 추적하면서, 연구자들은 스타틴 사용자가 안드로겐 결핍치료를 했을 때 무진행 생존율이 약 27.5개월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무진행 생존율이 약 17개월 이었다.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연구 저자는 말했다.

스타틴이 전립선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Ryan과 Harshman은 말했다.

신체는 “콜레스테롤 근간에 기초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Ryan은 말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 시킴으로써, 스타틴은 그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신체의 핵심 구성요소를 의도하지 않게 흡쳐서 활동 가능한 안드로겐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스타틴은 전립선 종양 세포가 남성 호르몬을 흡수하는 과정을 방해 할 수도 있다고 Harshman은 말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스타틴이 전립선암 세포에 의해 흡수되도록 경계를 두드려서 안드로겐을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후속 연구와 임상 시험이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라이언은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연구에서 환자가 자신의 암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좋은 논평이지만 여전히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Harshman은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효과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치료를 변경하는가?”라고 그녀는 말했다.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1364.html